



## 길림성 2025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본회장 도시 행사 연길서 개막

### 다채로운 무형문화 유산 공연과 전시판매, 체험활동 줄이어

'아름다운 길림 다채로운 연변' 길림성 2025년 '문화와 자연유산의 날' 본회장 도시 행사 개막식이 6월 14일 오전 연길시 아리랑광장에서 있었다. '현대생활에 융합된 젊은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길림성 문화관광청과 연변주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에서 주관했다. 길림성 문화관광청 청장 손광지와 연변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정부 주장인 홍경이 행사에 참석하여 개막 버튼을 누르고 행사 전시구역들을 일일이 둘러보았다.



▲ 조선족김치 제작기에 대표적 전승인인 김송옥(오른쪽)이 행사 현장에서 배추김치를 담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의 무형문화유산을 찾아서> 홍보 영상을 상영하였으며 제5진 주급 무형유산 대표적 전승인들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개막식 무대에서는 장고춤, 학춤, 부채춤, 가야금합주, 2인전 등 여러 민족의 우수한 무형문화유산 공연들이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연변 특색이 짙은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조선족 전통 떡 만들기, 조선족 민속악기 제작, 조선족 찹쌀 인형 만들기, 만족 전지, 차간호 물고기 가죽 공예 등 40개 국가급, 성급, 시(주)급 전통 공예 무형문화유산들을 전시하고 판매했으며 대중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조선족 전통 의상 체험, 상모춤과 가야금 연주 체험, 전통 떡과 김치 만들기, 고법(古法) 제지, 활자인쇄, 고서 제본(线装书) 등 다양한 체험 활동들이 마련되어 대중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생동감을 직접 가까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생산성 보호 시범기지인 연길시민족악기연구소의 소장 조기택은 자신이 직접 상모를 돌리고 장고를 치면서 조선족 악기의 시범동작을 해보였고 어린 체험자들에게

▲ 조선족김치 제작기에 대표적 전승인인 김송옥(오른쪽)이 행사 현장에서 배추김치를 담고 있다.

개 상모를 돌리고 가야금을 다루는 방법을 손수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민족악기 제작기에 국가급 대표적 전승인인 조기택 소장은 이번 행사에 연구소에서 만든 20여종의 조선족 악기들을 가지고 참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체험해보면서 즐거워했다고 말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김치 제작기에 대표적 전승인인 김송옥은 현장에서 김치를 담그는 한편 모여온 사람들에게 일일이 배추김치맛을 보여주면서 바빠 돌아치고 있었다. 그는 비록 70세를 넘긴 나이지만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전승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면서 행

▲ 길림성문화관광청 청장 손광지와 연변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정부 주장인 홍경 등 지도일꾼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개막 버튼을 눌렀다

사에 참가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는 또 조선족 전통의학, 만족 쑥뜸 치료법, 왕씨 근골치료법 등 전통 의학 무형문화유산 전승자들이 무료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화 전통 의학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연변조의학원 조의약연구실 주임 한길숙은 이번 행사에서 조의학원의 특색있는 황토치료법, 약침 등 다양한 조선족 전통 의학 치료법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해주었다고 밝혔다. 전시장 주변에는 또 길림성 여러 지역들의 무형문화유산 소개와 연변문화 사진전람까지 펼쳐져 광범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문화의 성연을 선사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8일간 진행되는 데 전 주적으로 18개의 온·오프라인 활동이 펼쳐진다. 주요 행사로는 무형문화유산 관광지 진입, 무형문화유산 학교 진입, 무형문화유산 관사 진입, 무형문화유산 스포츠 행사 진입 등 내용들이 포함되는데 연변주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대중의 인식



/안상근 김파 기자

## 길림성, 교통안전 단속 강화한다

6월 10일,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는 전 성 여름철 도로교통안전 정비 행동을 배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계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안전 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여름철 기간 야간 모임과 회식이 빈번해지면서 음주운전, 과속, 역주행, 피로운전, 야간 과속, 승합차의 정원 초과 등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피서, 가족여행, 졸업여행, 휴가, 농촌 체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려객 운송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건설자재 운송과 에너지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화물차 운송도 활발해지고 피로운전, 과속, 과적 등 위험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및 도로 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내 모든 교통법규 단속 장소와 과적 차량 검사소 교통안전 캠페인을 가능하고 주요 도로에 추가 단속점을 설치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른 아침과 저녁, 주말 및 공휴일 등 사고 다발 시간대에 순찰 빈도를 높일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전 성 차원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

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역별로 음주운전 야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한 교차검사와 이동 단속 등으로 과학적으로 근무를 배치하고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법규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도로를 순찰하며 농촌지역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더불어 려객 운송 안전 관리, 화물차 안전 감독, 불법 개조 차량 단속, 도로 위반행위 관리, 홍수기 교통비상 관리 등 분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와 협력해 위험한 도로 구간과 침수 가능성이 있는 다리, 붕괴 위험 지역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구역에 경찰인력을 추가 배치해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이번 단속은 여름철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른 아침과 저녁, 주말 및 공휴일 등 사고 다발 시간대에 순찰 빈도를 높일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전 성 차원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

/길림일보

### 긴급 뉴스

#### 대학입시 지원서 작성 공익행사 펼친다

《연변주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연변 2 중에서는 오는 6월 25일 오후와 26일 오전에 대학입시 지원서 작성 공익행사를 펼치게 된다.

행사는 연변 2 중 남문내 광장 등에서 펼쳐지는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방위적인 1대1 지원서 작성 지도와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 4월 전 성적으로 중앙 8항 규정 정신 위반문제 533건 조사처리

6월 12일, 성규률검사위원회 회감찰위원회는 2025년 4월 전 성 중앙 8항 규정 정신 위반 문제 조사처리 정황을 통보했다. 당월, 전 성적으로 중앙 8

항 규정 정신 위반문제 533건을 조사처리하고 627명을 비판 교육 방조하고 처리했는데 그중 515명에게 당규를 정무처분을 주었다.

#### 중국 공민, 오스트랄리아 비자 소지 시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 가능

6월 15일, 뉴질랜드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5년 11월 1일부터 중국 려권 소지자가 오스트랄리아에서 입국하고 오스트랄리아의 유효한 관광, 근무, 학

생 혹은 가정 비자를 소지한 경우 뉴질랜드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중환



연길공원의 함박꽃이 요즘 개화기를 맞아 떨기떨기 피어나 도시 속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파기자

### · 가요 ·

**새 시대 찬가**  
新时代赞歌

作词: 金正权  
作曲: 郑基松  
演唱: 朴银花

작사: 김정권 작곡: 정기송 노래: 박은화